

“비상계엄 무도한 세력에 ‘하느님’ 알리고 싶었다”

“80년 5월 광주 끝에서 세상 살아가는 길을 찾았다. 아니 걸어가야 할 길을 찾았다. 그것은 희망이자 사랑일 것이다.”

김준태 시인이 지난 81년 펴낸 시집 ‘나는 하느님을 보았다’를 생명과 문학 출판사에서 재발간했다.

18일 금남로에서 만난 시인은 여전히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쳐 보였다. 거리에서 또는 취재 현장에서 마주칠 때마다 그는 특유의 큰 목소리로 반갑게 후배들을 맞아주곤 했다. 소식을 뜰마다 싶으면 언제인가 싶게 책 발간 소식을 전해줄 만큼 부지런하고 성실한 ‘광주의 명물 시인’이다.

특히 시인은 80년 6월 2일 광주일보(옛 전남매일 신문)에 실린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를 장중한 문인으로 알려져 있다. 5·18 광주의 아픔을 세계에 알린 뜨거운 명작으로, 당시 계엄군의 검열로 109행 중 33행만 지면에 실렸다.

그는 이번 시집 발간 계기에 대해 “80년 당시 광주

김준태 시인 43년만에 ‘나는 하느님을 보았다’ 재발간 ‘아아 광주여!...’로 80년 광주의 아픔 세계에 알려

에서 보았던 ‘하느님’을 서울 등 전국에서도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집을 출간했다”며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무도한 세력은 물론 많은 평범한 시민들에게도 이 시대 하느님을 보여주기 위해 책을 펴냈다”고 전했다.

그는 젊게 살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걷고, 시를 쓴다. “어느 날은 하루에도 20편 이상의 시가 쏟아져 나올 때도 있을” 만큼 그는 천상 시인의 운명을 타고 났다.

매일 전일빌딩245 3층 디지털 도서관에 출근하는 것도 하루의 루틴이다. 그곳에서 시도 쓰고, 번역도 하고, 문예지에 게재할 글도 쓰면서 하루하루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하느님을 보았다”의 의미는 “이 시대 하느님을 보여주기 위한 뜻이 투영돼 있다”며 “우리를 있게 하시는 분이 하느님이며 죽은 우리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느님”이라고 다소 철학적 사유의 말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집에는 광주 시민들의 영혼도 투영돼 있다”며 “시와 인간, 세계와 생명을 유기적 관계로 풀어낸 문학사적 의미도 담았다”고 부연했다.

이번 시집은 지난 80년 5월부터 이듬해인 81년 5월 1년에 걸쳐 장중한 시들이다. 세월이 흘렀지만 당시의 감성과 의기, 에너지는 여전하다.

“1980년 7월 31일/ 저물어 가는 오후 5시/ 동녘 하늘 문개구름 위에/ 그 무어라고 말할 수 없이/ 앉아 계시는 하느님을/ 나는 광주의 신안동에서 보았다/ 몸이 아파 술을 먹지 못하고/ 대신 콜라로라 목을 축이면서/ 나는 정말 하느님을 보았다/ 나는 정말 하느님을 느꼈다...”

그렇게 ‘나는 하느님을 보았다’는 다분히 상징적인 언술로 다가온다. 80년 5월 핏빛으로 물들던 광주를 체험했던 그가 본 하느님은 “인간의 말로는 설명

할 수 없는 대상”이다. 1980년 6월 2일자 광주일보(옛 전남매일)에 실렸던 그의 시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에서도 ‘우리나라의 십자가’였던 광주의 상흔과 절망,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었던 희망을 아프게 노래하고 있다. 당시 시인으로서 그가 꿈꾸고 추구했던 하느님은 “영적 체험과 역사적 체험을 분리하지 않고 민중과 함께 민중의 한을 풀어주는 대상”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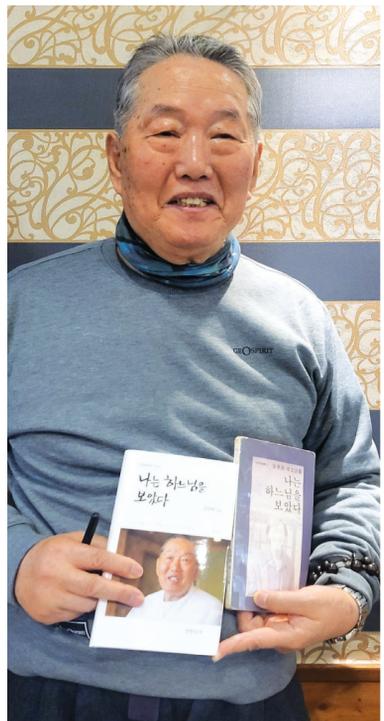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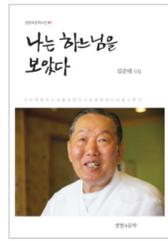
한편 문학평론가 고(故) 김치수 전 이화여대 불문과 교수는 그의 작품에 대해 “대단히 거친 것처럼 보이는 그의 시적 표현들은 언제나 두 개의 강렬한 이미지가 부딪힘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불꽃을 튀게 만들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잠든 의식에 충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 충격은 우리 시가(詩歌)의 전통적인 가락 때문에 유감하면서도 깊은 감동을 경험하게 한다”고 평한 바 있다.

인터뷰 말미에 그는 ‘사랑’을 힘주어 말했다. 사실 우리 사회에는 힘들고 고통 속에 놓여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

“모든 것이 지구가 멸망해도, 멸망 끝에서 떠오르는 것은 사랑이다. 세상 모든 것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은 것은 사랑이다.”

한편 해남 출신의 시인은 지금까지 ‘참깨를 털면서’, ‘갈과 흙’ 등 시집 17권과 영역시집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일본어시집 ‘광주로 가는 길’, 독일어시집 ‘물거미의 노래’ 등을 펴냈다. 광주대, 조선대 초빙교수를 역임했으며 5·18기념재단이사장을 역임했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준태 시인이 ‘나는 하느님을 보았다’ (왼쪽)와 81년 펴낸 ‘나는 하느님을 보았다’를 들고 포즈를 취했다.



1980년 6월 2일자 광주일보(옛 전남매일), 김준태 시인의 시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왼쪽)가 계엄사 검열단에 의해 제목과 기사가 무참하게 잘려나간 채 발행됐다(오른쪽). <광주일보 자료사진>



메타버스 어린이 체험관(왼쪽)과 외곽외곽 도서관. <ACC재단 제공>

ACC 어린이문화원, 최첨단으로 만나요

AI·메타버스·실감형 콘텐츠·관람환경 개선 재개관

들라키즈, 외곽외곽 도서관, 그림책 속 세상..

ACC 어린이문화원이 최첨단 기술로 새롭게 단장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사장 김선옥·이하 ACC재단)은 ACC 어린이문화원의 콘텐츠 및 관람환경을 개선하고 재개관했다.

시대 트렌드에 맞게 인공지능, 메타버스, 실감형 콘텐츠 등 첨단기술을 반영했으며 관람 동선을 바꿔 편의를 도모했다.

이번 개편은 지금까지 분산돼 운영하던 안내·매표·물품대여소를 로비 중앙에 통합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관람객 수요를 반영하기 쉽다. 물품보관 등 편의·휴게 시설도 확충했다.

공간 개편과 맞물려 디자인을 개발하고,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안내 시스템을 구축했다. 디자인은 ‘세계를 향한 아시아의 창’이라는 ACC의 비전과 ACC 건축의 상징인 ‘기억의 빛’을 모티브로 어린이문화원 정체성을 담았다.

어린이문화원 로비에는 ACC 어린이상품점 ‘들라키즈’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전시와 교육 등 콘텐츠 연계 상품, 아시아 스토리 기반 그림책 등을 문화상품으로 접할 수 있도록 했다.

ACC어린이문화원 캐릭터인 ‘시아와 친구들’을 활용한 교구재와 문구, 도서 등은 아시아 문화에 대한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어린이도서관도 새롭게 꾸몄다. 어린이들이 책을 즐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배려하기 위해 ‘외곽외곽 도서관’으로 재탄생시킨 것. 인공지능을 이용 그림을 그리

거나 음악을 만드는 체험이 가능하며 첨단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반짝반짝 이야기’에서는 SK텔레콤의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그림일기를 창작하는 체험도 가능하다.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위해 그림책 체험전도 펼쳐진다. ‘아시아 이야기 꾸러미: 신나는 그림책 모험’ (내년 3월 3일까지 유료 전시)은 ACC재단과 3D 융합콘텐츠 전문기업 ㈜인디고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2024년 체험융합콘텐츠 제작지원사업’에 선정돼 기획했다. 그림책 5권 속 이야기를 실감형 체험 콘텐츠로 재구성한 것. ‘호수 속 여왕의 장신구 찾기’, ‘구름 친구로 변신해보기’, ‘엄각화 그리기’ 등 프로그램을 매개로 ‘아시아의 옛 이야기’를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다.

아시아 문명을 메타버스로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있다. 온라인 콘텐츠 ‘메타버스 어린이 체험관’은 시·공간 제약 없이 3D 아바타를 통해 아시아 문명 탐구가 가능하다. 특히 고대 메소포타미아·인도스·이집트 문명을 비롯해 필리핀 코르딜레라스의 계단식 논, 중앙아시아의 이동식 집 ‘유르트’ 등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이색적인 모험을 즐길 수 있다.

김선옥 재단 사장은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어린이문화원은 ‘어린이 문화발전소’라는 정체성에 맞게 호기심과 상상력을 기미한 콘텐츠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어린이들이 아시아 각국 문화와 예술을 모티브로 다채로운 놀이와 체험, 창작활동을 마음껏 즐기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찾아가는 국악원’ 참여 사회복지시설 모집

국립남도국악원 오늘부터

국립남도국악원(원장 박정경·국악원)이 내년 ‘찾아가는 국악원’ 사업에 참여할 대상 사회복지시설을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모집한다.

국악원이 2017년부터 진행해 온 사업으로 평소 공연장을 찾지 못한 전남도 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통예술공연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한다. 나주 요양원, 진도 노인전문요양원을 비롯해 실버타운, 노인케어센터 등에서 공연을 펼쳐 왔다.

올해 총 10회 운영할 예정이며 관람 대상에 따라 다양한 가무악 레퍼토리를 제공한다. 참가 신청은 이메일로 진행하며 결과는 내년 1월 10일 안내할 예정이다.

국악원 이지연 주무관은 “‘찾아가는 국악원’은 문화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에게 전통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며 “지역 문화 향수권을 확장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는 단체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악원 누리집 참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크리스마스에 만나는 예술영화

‘전장의 크리스마스’·‘서브스텐스’·‘힘을 낼 시간’ 등 상영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예술영화를 감상하면서 연휴를 보내보는 것이 어떨까. 성탄절 당일, 광주극장에서 다채로운 작품들이 개봉할 예정이어서 이목을 끈다.

먼저 제37회 영국 아카데미 안소니 아스퀴스상을 받은 오시마 나기사 작 ‘전장의 크리스마스’가 스크린에 걸린다.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일본의 ‘무사도 정신’을 맹신하는 일본군 대위 요노이의 모습을 비춘다. 그는 포로수용소에서 영국군 소령 켈리어스를 마주한 뒤 자신의 역할과 인간성에 대한 내적 갈등을 한다. 일본어를 구사하는 영국군 중령 존 로렌스가 수용소에 들어오면서 수용소 분위기는 미묘해진다.

격화되는 전장의 열기 속에서 과연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일어날 수 있을까. 관람객에게 A3 사이즈 ‘전장의 크리스마스’ 포스터를 선착순(온·오프라인 50명)으로 제공한다.

지난 11일 개봉한 영화 ‘서브스텐스’도 같은 날 광주극장을 찾아온다. 작 중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뒤 명예의 거리를 누비던 대스타 주인공(데미 무어 분)은 서브스텐스라는 약물을 권유받고 젊음을 되찾는다.

주사를 맞으면 아름다운 ‘수(마가렛 켈리)’가 될 수 있지만 정해진 규칙을 어기면 재앙이 찾아온다. 선착순 50인에게 ‘시네마 보딩패스’를 증정할 예정.

이외 광주독립영화관은 25일 ‘퀵스텝, 엘리스(오후 1시)’, ‘미망(오후 2시 40분)’, ‘힘을 낼 시간(오후 4시 40분)’을 상영한다. 당일 오후 6시 40분 개봉하는 ‘면접교섭’도 흥미로운 로그리언으로 주목받는다.

광주극장 김형수 전무는 “파격적인 연출로 미와 육



‘서브스텐스’ 시네마 보딩패스. <광주극장제공>

망에 대한 가치를 그린 스타일러부터 포화 속에서 인간성을 성찰하게 하는 작품까지 다양한 영화를 선보인 다”며 “연휴를 맞아 극장가에서 한 편 영화가 ‘선물’하는 낭만을 만끽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디트릭스 등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한빛원자력본부와 함께하는

전남광역푸드뱅크에 저소득층의 끼니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기부해 주세요.

푸드뱅크는...

기업 등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이 기부받아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에게 무상지원하는 물적 나눔제도입니다.

☎ 061-283-1477 🌐 www.jncsw.or.kr/7-1.htm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 전남광역푸드뱅크 해산나눔푸드마켓 1호점